"편견의 시선 그만…당당하게 학교 다니고 싶어요"

② 학교가 싫은 아이들

무시·냉대·집단 따돌림에 학교 밖으로 겉돌아
'이방인' 아닌 소중한 인적자원으로 길러내야

15일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에 위치한 다문화 가정 방과 후 학교. 공부를 마친 다문화 가정 2세들이 인근 놀이터로 향하고 있다. 아이들은 같은 처지에 놓인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게 편하고 재밌다고 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 중부취재본부/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1 캄보디아인 엄마를 둔 김승규(가명·10·초교 3년)군은 두 세 마디 말로 하루를 버틴다. 누군가 말을 시키면 고갯짓으로 대답할 뿐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을 시켜도, 친구들이 장난을 걸어와도 "예", "아니오", "응" 등 3음절을 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김군은 친구들에게 놀림의 대상이다. 욱하는 마음에 사고도 쳤고, 같은 반 친구와 싸움을 했다. 친구들이 쏟아낸 말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저런 친구와 어울리지 마라"는 무시와 냉대 뿐이었다.

김군은 방과 후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친구들과 마음 편히 놀 수 있는 유일한 '해방구'이기 때문이다. 김군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 2~3명과 어울려 다니면서 수업시간에 자신을 괴롭혔던 친구들을 혼내준다. 김군은 "학교 다니기 싫어요. 밖에서는 괴롭히는 친구들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라고 말했다.

#2 베트남에서 시집온 쩡티휴인란(가명·32)씨는 열흘 전 아들 박재석(가명·11·초교 5년)군이 무심코 내뱉은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박군이 '엄마, 나 진짜 외계인이야?'라고 물어온 것이다.

쩡티휴인란씨는 "아이가 피부색이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외계인이라며 놀림을 받은 것 같다"며 "울면서 들어온 아이의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털어놓았다.

박군은 학교에서도 한국 친구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 "책을 빌려달라"는 등의 사소한 부탁이라도 한국 친구가 하면 들어주지 않는다. "네가 뭔데"라며 버럭 화부터 낸다. 강한 척 하지 않으면 한국 친구들을 감당해낼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쩡티휴인란씨는 "재석이의 원래 성격은 그렇지 않은 데 한국 친구들의 냉대에 시달리다 보니 공격적인 성향을 갖게 된 것 같다"며 고개를 흔들었다.

#3 10년 전, 필리핀에서 강진으로 시집온 아니카(가명·37)씨의 아들 이승철(가명·12·초교 4년)군은 늘 혼자다. 우리말이 어눌한 탓에 친구가 없다. 친구들에게 "왜 너만 몰라?"라며 놀림을 받기 일쑤다. 노트·교과서는 온통 까맣다. 수업을 이해하지 못해 낙서만 하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수업 중에 물어도 "그게 뭐예요?"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뿐이다. 책가방도 항상 텅 비어 있다. 한글을 잘 모르는 엄마가 가정통신문을 이해하지 못해 준비물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군의 실내화를 챙겨주는 것도 곧잘 잊어버린다. 엄마가 자란 필리핀에서는 교내에서 실내화를 신는 게 습관화되지 않은 탓이다.

한국인 배우자와 국제결혼으로 맺어진 다문화가정이 늘면서 2세 교육이 점차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뿌리 깊은 혈통주의와 단일민족 정서가 2세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한국 사회에 대한 반감을 갖게 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정 2세는 2008년 현재 전국적으로 5만8007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광주·전남의 다문화가정 자녀는 각각 2.8%(1608명), 8.5%(4902명)로 전체의 11%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광주·전남은 지난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숫자가 각각 2752명, 7775명으로 처음으로 1만명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광주·전남의 교육 현장도 다문화가정 2세들로 빠른 속도로 채워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뿌리깊은 순혈주의 속에 부와 교육의 대물림이 심한 우리 사회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막연한 대책 만으로는 이들의 진학은 물론, 취업이나 각종 사회생활을 무난히 이끌어 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문화가정 자녀가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은 각종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최근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17.6%가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경험했다.

집단 따돌림의 이유는 '엄마가 외국인이라서'(34.1%)가 제일 많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20.7%), '특별한 이유 없이'(15.9%) 등이 뒤를 이었다. 다문화가정 2세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한국인으로 살아가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현실은 냉대와 차별 대우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냉대와 차별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사회를 향해 던지는 냉소는 '매우 위험한 메시지'라고 지적하고 있다.

광주인권사무소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무시와 냉대가 여전한 상황인데도 이들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원으로 자라주길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잘 길러낸다면 소중한 인적 자원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커다란 재앙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작성됐습니다.

언어 장벽·학습 부진…맞춤형 교육 대안 절실

24.5% 정규교육 못 받고
학교생활 적응못해 방황
"같은 구성원 시각 가져야"

캄보디아인 엄마를 둔 박근수(가명·12·초교 6년)군은 초등학교 내내 숙제를 제대로 못하고 준비물도 못 챙겨 담임교사로부터 지적을 받아왔다. 엄마가 한국어가 서툴러 알림장을 봐도 챙겨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학습부진아 판정을 받은 박군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서서히 '왕따'가 됐다. 또래 아이들은 박군에게 온갖 심부름을 시켰고, 짓궂은 장난을 걸기 일쑤였다. 박군은 점점 더 말수가 줄고, 집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학교에 가는 날도 적어졌다.

다문화 가정 2세들은 법적으로는 완전한 한국인이지만, 우리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때문에 이방인으로 전락하고 있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2008년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취학 연령대 자녀 2만4867명 가운데 6089명(24.5%)이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15.4%, 중학교는 39.7%, 심지어 고등학교는 69.6%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었다. 이는 일반 가정에 비해 6~8배 높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이주 1세들과 달리 스스로 한국인으로 자각하는 2세들이 교육 기회 차별로 인해 사회 부적응자로 성장하면 한국 미래에 '시한폭탄'이 될 가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언어 장벽으로 수업을 따라가기 힘든 데다, 피부색이나 외모를 이유로 따돌림까지 당하니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그나마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아이들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다문화 교육이 다문화 가정 자녀들만을 대상으로 이들을 일방적으로 우리나라 문화에 편입시키려는 이른바 '동화주의'(assimilation)를 못 벗어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 다문화 정책을 보면 이민 2~3세들을 단순히 자국 문화에 융화시키는 '용광로'(melting pot) 주의는 이제 옛말이다. 문화 다원주의에 입각해 다양한 언어·문화적 특성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국가경쟁력으로 승화시키는 '샐러드볼'(salad bowl) 주의가 새로운 트렌드가 됐다.

전문가들은 "물론 성격은 다르지만 미국이나 프랑스 등에서의 소수민족 소요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단순한 관리나 배려 차원이 아니라, 똑같은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전제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2009~2010년 S대를 12명 합격시킨
일곡 국민학원, 봉선 국민영재학원이 야심차게 펼치는
중3 대상 고1예비 특별반 4개월과정-강사진 8명이 수업 (고등학교 입학 후 최우등생으로)
※개강 11월 3일 각 학원 1개반 모집 (영·수 Test 후 수강결정)
마감 유의 → 가까운학원으로 문의 바랍니다.

강사진	언어	수학	영어	과학	국사
	최복수 / 서강대 대학원 / 전, 양영학원 서울대반 / 전, 대성학원 서울대반	주석진 / 전, 문성고 / 전, 대성학원 서울대반 / 고난도 수 II N제	신경찬 / 전, 양영학원 서울대반 / 과학고 TEPS 다년간 지도 / 수능영어 및 TEPS	배철훈 / 전, 대광여고 / 전, 대성학원 서울대반 / 공통과학 및 화학 I · II	문승훈 / 전, 양영학원 서울대반 / 현, 일등학원 / 최고의 국사 수업
	강동구 / 동국대 대학원 / 전, 대성학원 서울대반 / 현, 국민영재학원 논술팀장	박현철 / 전, 일등학원 / 전, 양영학원 서울대반 / 고난도 10-가.나 · 수 I			
	정성환 / 연세대 대학원 / 현, 대성학원 서울대반 / 현, 청솔학원 서울대반	양덕열 / 연세대 경제학과(서울) / 전, 서울두레박학원 / 현, 국민영재학원	조도현 / 전남대 영문학 박사 / 전, 대성학원 서울대반 / 수능영어 및 TEPS	최상위권을 위한 변화의 시작! 원하는 목표를 한단계 더 높이자!!	
	박영미 / 국민학원 / 국민영재학원 / 국어 및 문학담당	이강영 / 전, 서울청솔학원 / 전, 일산페르마학원 / 현, 국민영재학원			

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토
6:00~7:30	수학	수학	언어/논술	수학	수학	4:30~6:00 언어/논술
7:30~9:00	영어	영어	과학/국사	영어	영어	6:00~7:30 과학/국사

수업시수 (과목 / 시수)	주별 수업 시수	월별 수업 시수	비고
영어	4 time (8시간)	16 time (32시간)	수능영어 + TEPS
수학	4 time (8시간)	16 time (32시간)	10-가,나 + 수 I +수 II
언어	2 time (4시간)	8 time (16시간)	고등논술 + 수능문학 + 비문학
과학 / 국사	2 time (4시간)	8 time (16시간)	공통과학 / 국사

일곡동 국민학원 574-0101 일곡 롯데슈퍼옆
엘리트 영재를 만드는 학원 가까운 지역에서 상담하세요.
봉선동 국민영재학원 672-0483 봉선 이마트 옆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각종못받은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요 ★
새한신용정보(주)
062)228-0990,010-8494-9484

남성 휴대용
실물과 똑같은 내여자
[꿈꾸는 공주]
1. 꿈꾸는 공주처럼 아름답다.
2. 피부가 보드랍고 매끄럽다.
3. 내 여자 같이 오래~오래
4. 휴대가 간편하고 사용이 편리하다.
5. 성 범죄 심리가 예방된다.
6. 심리적 안정감을 갖는다.
7. 원양어선/해외파견/독신자생활시에
주문량 폭주
※사은품 80,000원 상당 증정※

(식약청 USA 통관제품)
인기폭발 "양코"
본 제품은 식약청 통관 미국 직수입품입니다.
30대부터 80대까지 지구력이 당당해 지므로
복용하신 분이 다시 찾습니다.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농협 1100-3108 안향연
생로병사 불로장생 책을 드립니다.
02-2068-4142 010-6306-7070
02-2068-4143 010-3611-8272